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section with columns for EBS1 and EBS2. Rows list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section. Rows list additional educational programs.

서영희 "대본 받을 때마다 '헉!' 놀라"

MBC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 몰락한 여배우役

지난해 영화 '추격자'에서 공포에 질린 여성의 모습을 절묘하게 연기한 서영희(29)는 세간의 예상을 갠 차기작을 선택했다. 진지한 이미지에 더 집중하는 대신 과격적인 '웃음'을 고른 것. 바로 MBC TV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였다.

상으로 편집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본을 받아들 때마다 '헉'하고 놀랐지요. 매장면 매순간마다 당황했습니다. 저로서는 대본대로 열심히 연출할 수 밖에 없었어. 저는 노력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점에서는 극 중 캐릭터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그래도 나는 캐릭터처럼 생각없이 행동하지는 않는다"며 미소지었다.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진 씨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손발이 잘 맞아요. 현장 분위기를 띄우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보다 카메라 앞에 선 경험이 많아서인지 제가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그는 다음 작품으로 5월부터 방송되는 MBC TV '신덕여왕'을 골랐다. 덕만공주의 양어머니로 죽음의 위기를 맞은 덕만을 몰래 살려 중국으로 함께 도망치는 인물 소화. 덕만공주는 나중에 신덕여왕이 된다. 이처럼 서영희는 '추격자' 이후 작품마다 큰 변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스릴러 영화→시트콤→사극으로 장르 선택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그분이 오신다

Section titled '부동의 형세' (Unshakable Form)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Go match between Kim Gun-hong and Park Seung-tan.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for today) listing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and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English and Korean text, and Chinese characters.